

진도군, 최첨단 스마트팜 유리 온실 건립



진도군이 투자유치를 통해 해수 열을 이용한 최첨단 스마트팜 유리 온실 건립을 추진한다.

최근 진도군청 군수실에서 (주)엔아이알(대표 남유승)과 진도군 일원에 '첨단 유리 온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도군과 (주)엔아이알은 MOU를 통해 ▲해수열을 이용한 최첨단에너지 절감 스마트팜 온실 건립 ▲친환경 농작물 재배단지 조성 등을 추진, 고소득 원예특용작물의 산업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

(주)엔아이알 100억원 투자 위한 업무협약 체결

내년 상반기 33,000m² 규모 온실 시설 재배 추진

다.

1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8년 상반기부터 33,000m²(10,000평) 규모의 스마트 유리 온실 시설 재배를 추진하며, 고용인원은 50명으로 예상된다.

(주)엔아이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선진농업 기술·보급으로 지역전략 특화품목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판매·관광이 결합된 6차 산업화 실현으로 지역농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협력관계로 넓혀 갈 예정이다.

해수열은 해수 표층에 저장된 열에너지를 의미하며, 주로 건물의 냉·난방, 농가나 산업체 등에 필요

한 열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해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로 지정된 바 있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진도군 원예 산업화 실현과 최첨단 농업시설 확대를 통해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진도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농산물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군민소득 1조원 달성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농협 임직원,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무안농협(조합장 김미남)은 지난 26일 무안읍사무소 회의실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무안농협 임직원 30여명이 십시일반 모금한 것으로,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년 모금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미남 조합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면서 "그 분들에게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직원들과 함께 작은 정성을 준비했고 앞으로도 상생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협이 앞장서 가겠다"고 말했다.

고용석 무안읍장은 "연말을 맞아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 점 깊이 감사드린다. 기탁해 오신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이기성 기자

일몰이 아름다운 완도 해안도로

다도해 섬·양식장 어우러져 이색적 풍경 자아내

일몰이 아름다운 완도 해안도로에서 다도해 섬들과 양식장이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 감상하며 드라이브 즐겨보세요.

2017년 정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완도군은 일몰과 일출 관광지로 일몰은 완도 해안도로, 일출은 완도티위가 있는 다도해 일출공원을 추천했다.

완도 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는 완도대교를 지나 완도 서부길 77번 국도를 달리는 코스로 일출공원, 갯비랑공원, 미소공원이 있어 중간 중간 쉬어가면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완도 77번 국도 주변으로는 완도수목원, 청해포구 훨영장, 어촌민속전시관, 정도리 구계등이 있어 완도 관광지 투어 코스로도 제격이다.

매년 해맞이축제를 개최했던 완도군은 올해 AI학원 방지 차원에서 공식 행사는 취소했지만, 일출 명소로 유명한 완도티위는 1월 1일 6시부터 정상 개방을 해 일출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자원봉사센터, 2년 연속 전남도 평가 '최우수'

전남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서 상금 2백만원 수상

장흥군 자원봉사센터는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8일 전남도 행정부지사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장흥군은 최우수 상 상패와 시상금 2백만원을 수상

했다.

전남 22개소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자원봉사활동 실인원 증가율, 연인원 증가율,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장흥군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에 선정돼 3개 단체 5백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봉사·공연 재능기부·다문화 치구촌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2016년도에는 최우수센터로 선정돼 사업비 6백만원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접수리 사업을 진행했다.

정남진·장흥·전국 마리온, 정남진·장흥·불죽제, 2017 대한민국 통합의 학박람회 등 각종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활발한 자원봉사자 활동을 벌인 것도 이번 평기에 반영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단체에서 주도하는 지역에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각각적인 지원을 늘려가자"고 말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여수시, 지역작가 초대전 '연장'

달빛갤러리 개관 기념…관람객 3500명 넘어 내년 2월 28일까지

여수시가 달빛 갤러리 개관을 기념해 개최한 지역작가 초대전 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달빛 갤러리 개관 기념 전시회가 당초 이

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수 지역작가 26명의 회화·공예 등 작품 26점으로 꾸며진 전시회는 지난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35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인근 고소대, 고소천사벽화마을 등을 둘러보고 달빛갤러리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았다.

이에 따라 시는 전시회 기간을 내년 2월까지 늘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달빛갤러리는 고소대 인근에 지상 2층, 연면적 79.14m² 규모로 전시실과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지난 6월 준공됐다.

시는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2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관람객 황경숙(50·여)씨는 "전시작품들이 공감하기 쉽고 집안에 걸어두면 어울릴 것 같은 작품 사이즈도 많이 든다"며 "무엇보다 갤러리가 이름과 적절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관람평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예술작품 감상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하고 있다"며 "올해 건립이 완료된 엑스포아트갤러리와 달빛갤러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393.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뱃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처 관리 병행